

#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기후동행카드 혜택 확대

## 2025년 서울,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자녀를 출산하면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매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의 정책 수혜 기간이 군 의무복무 기간(최대 3년)만큼 연장돼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부터 서울청년에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다양한 청년정책도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 총 8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의 미래비전인 '동행·매력 특별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확대한다

### ◆ '저출산 문제 해소' 출산·양육 부담 완화

서울시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꼽히는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2025년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2년간 전세보증금 이자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매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출산한 무주택가구에 월 30만원 지원  
서울형 키즈카페, 200개소로 늘려  
제대군인, 정책 수혜연령 확대 적용  
이달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개소

하반기 기후동행카드 이용범위 확대  
빨간불 시간 표시 신호등 추가 설치

신혼인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알파룸·빌트인 가전 등 신혼부부의 선호도를 반영한 소형 아파트나 신축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 매입한

다. 미리내집과 연계해 10년 후엔 대단지 미리내집(아파트)으로의 이주를 지원하고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양육 부담 완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공간은 물론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현재 130개소에서 200개소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의 출근과 초등자녀의 등교가 맞물리는 아침시간대 등교 지원 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서울형 아침돌봄키움센터'도 10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출산·육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임산부 당사자에 '출산급여' 90만원을 지원하고, 배우자가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80만원을 지원한다.

### ◆ 대학생 동아리 지원·시니어일자리센터 등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게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정책 수혜 연령을 확대 적용한다. 청년들이 군 복무기간 동안 누리지 못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균형있게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조례상 청년 연령은 19~39세로, 군 의무복무 청년은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42세까지 정책 대상이 된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 관계를 맺기 힘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기회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사회기여 활동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54개 대학 내 200개 동아리를 선정해 최대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1월에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60세 이상의 '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한다. 은퇴 전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부터 직무 맞춤형 취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재취업과 사회참여를 돕

는다. 응급실 이용이 어려운 경증환자와 특정 질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는 서울형 응급의료체계도 구축한다. 경미한 외상이나 복통·고열 등 경증 급성 질환자는 '서울형 긴급치료센터(UCC)', 외과계 질환자는 '질환별 전담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 ◆ 기후동행카드 지원 확대... 이동권 강화

시민이 뽑은 '2024년 서울시 정책' 1위를 차지한 기후동행카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서울은 물론 김포·남양주·구리·고양·과천시에서 사용 가능한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하반기부터 의정부·성남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된다. 기후동행카드의 혜택 연령도 최대 42세까지 늘어난다.

보행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 보도를 건너도록 '빨간불 남은 시간' 표시 신호등도 올해 350개소에 이어 내년까지 총 800개소를 설치한다. 2030년까지 4000개소가 목표다.

이 밖에도 교통소외지역에 마을버스형 자율주행버스를 시범 도입해 시민 이동을 돕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는 강화해 시민 불편을 덜어준다. /이현정 기자 lhj@metroseoul.co.kr

## 고양시,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조성

### 일산테크노밸리, 토지공급·분양 예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도 지정 산업역량·기반시설 조성 발전 기대

고양시가 새해 일산테크노밸리 등 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일지리와 자족시설 확대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 중심 경기북부 신성장 거점으로 기대를 받아 왔으며 새해 상반기 본격적인 토지공급과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ICT,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스마트 모빌리티 등 지식기반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기업혁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4차산업 위주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여 기업성장과 함께 일자리 창출, 미래자족도시를 실현하고 경기 남북부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어 갈 방침이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일산서구 대화동, 법곡동 일원에 첨단산업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된다. 전체면적은 87만1761㎡(약26만평)이며 산업시설용지 36%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31만4263㎡), 공원녹지 21.4%, 도로 23.7%, 기타시설 용지 8.4%, 근린생활 시설 1.8% 등이다. 2023년 10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현재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새해 상반기 토지공급 및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경기북부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됐다. 대상지역은 고양시 장항, 법곡, 식사, 백석, 화전, 동산, 원흥동 등 8개 행정동에 걸쳐 면적 125만㎡(약 37만8천평)에 달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을 일정지역에 밀집시키고 기술개발,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 효율성을 높여 벤처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입지 지원제도다. 경기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최초로 지정됐다.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재산세 최대 50% 감면, 개발부담금 등 5가지 부담금 감면, 건축물 미술장식 설치의무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도 전체 면적이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토지 분양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새해에는 일산테크노밸리 토지분양으로 첨단산업 단지 조성이 구체화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부 최종지정 신청, GTX-A 노선 개통 등 고양시의 산업역량과 기반시설 조성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전남도, 뱀 관련 지명 42곳... '전국 최다'

'푸른 뱀띠 해' 맞아 전국 지명 분석  
고흥 영남면 금사리 사도 '명당'

전남이 전국에서 뱀 관련 지명(地名)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을사년 '푸른 뱀띠 해'를 맞아 전국 30만 여 개의 지명을 분석한 결과 뱀 관련 지명이 210여 개며, 이 중 전남이 42곳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십이지 중 뱀은 구약성서에서는 아담과 이브를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어 교활함의 대명사로 비유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조들은 알과 새끼를 낳아 다산과 풍요·재물의 가복신(家福神)으로, 지혜와 예언 능력·근질긴 생명력과 죽은 이의 부활과 영생을 돕는 존재로 인식하기도 했다.

전남지역 뱀 지명은 종류별로 마을이

27개, 계곡이나 섬이 각각 5개, 산 3개, 골짜기 2개다. 시·군별로는 고흥이 6개, 광양이 5개, 여수·보성·장흥·해남·완도가 각각 3개며, 나주와 구례·진도·신안이 각각 2개 등이다.

뱀 관련 지명 중 뱀의 모양과 관련된 지명이 가장 많았고, 대표적으로 뱀처럼 긴 모양의 섬으로 '장사도', 구불구불한 모양의 '뱀골' 등이 있다.

뱀의 모양을 묘사한 지명 중 뱀이 개구리를 쫓아가는 지형인 '장사추외형(長蛇追蛙形)'은 먹을 것이 풍부한 좋은 터로, 풍수지리학자들이 일컫는 명당의 하나다. 고흥 영남면 금사리의 사도가 해당된다.

전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명의 활용도,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 관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 서울형 라이즈, 기본계획·위원회 구성 완료

### 대학·지역 동반성장 도모

서울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Rise-라이즈)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형 라이즈 기본 계획' 수립과 민·관·학 기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서울 혁신 대학 지원 위원회'(서울 라이즈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시가 교육부에 제출한 서울형 라이즈 기본 계획은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지역 사회 동반 성장 ▲서울 전략

산업 기반 강화 ▲대학 창업 육성 ▲평생·직업 교육 강화 등 5대 프로젝트, 12개 핵심 단위 과제로 이뤄졌다.

시는 대학 주도로 프로젝트와 단위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조합하고 설계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한다는 복안이다.

서울 혁신 대학 지원 위원회에는 서울시 관계 실·국장, 출연기관장, 대학 총장, 민간 전문가 총 20명이 참여한다. 서울시장과 대학 총장 1인이 공동 위원장을 맡아 위원회를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hjk1@

## 동해중부선 개통... 동해안 경제 활성화 전망

### 3.4조 투입해 15년 8개월 만에 완공

포항과 삼척을 잇는 동해중부선이 새해 첫날 개통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동해권 경제가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동해중부선(포항~삼척) 철도사업은 총연장 166.3k

m, 총사업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2009년 4월 착공 이후 15년 8개월 만에 완공됐다.

동해선 첫 열차는 새해 첫날인 1월 1일 새벽 5시 28분 강릉에서 출발해 경북 울진, 영덕, 포항, 경주를 거쳐 종착역인 부산 부전역에 도착했다.

강릉~부전 구간은 ITX-마음이 왕

복 8회 운행되며, 강릉~대구 구간은 ITX-마음 왕복 2회, 완행열차인 누리로가 왕복 6회 운행된다.

이로써 그동안 철도 불모지였던 동해안에 대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면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동해선 개통으로 강릉에서 부산까지 4시간 48분, 강릉에서 대구까지 환승 없이 4시간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m